

루치아노 칸포라 《사라진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

글_장동석 기자

이집트 나일 강 입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다. 2002년 10월, 기원전 3세기부터 존재했다는 전설의 도서관 자리에, 엄밀하게 말하면, 도서관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자리에 이집트가 재건한 것이다. 이집트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외관을 재건했다면, 이 책의 저자 루치아노 칸포라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정신을 재건했다. 고전 시대를 연구하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문헌학자인 그는, 326편의 고대문헌과 현대 기록 속에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실체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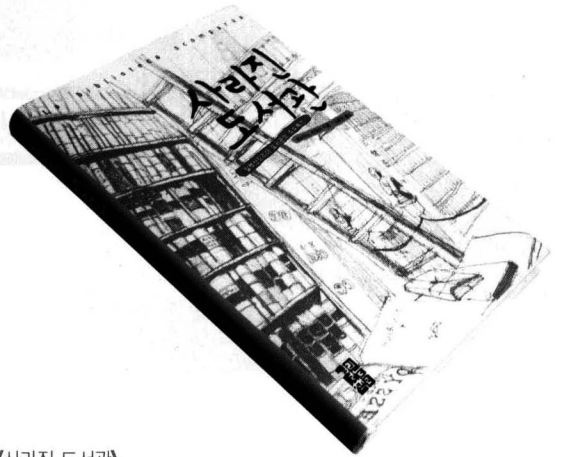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자주 언급되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소테르에서 시작해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가 만들어내 작품이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모아 알렉산드리아를 '학문과 지식의 보고'로 만들겠다"는 부자의 의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 세계 책을 수집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70만 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게 되었고, 기원전 3세기 경 알렉산드리아는 프톨레마이오스 부자의 바람처럼 '학문의 중심지'가 된다.

처음 책을 집어 들면, 다소 산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네 생각 같아서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숨겨진 연혁부터 차례로 짚어주면 되겠지만, 저자는 그리스 역사가 헤카타이오스를 끌어들이 람세스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으로 서두를 끌어내고 있다. 저자는 헤카타이오스의 시선과 손끝에 의지하는 듯하면서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하나의 건물도 아닌, 그렇다고 그 자체로 넓은 방도 아닌 회랑을 따라 배치된 책장들이었다고 말한다. 그 증거로 카이사르 전투 때 발생한 화재로 인해 책은 소실되었으나 건물이 소실되었다는 기록은 없다고 들이댄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궁전과 떨어진 도시 남쪽의 세라피스 신전에 세라피움이라는 부속 도서관을 건설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책 제목처럼 '사라진 도서관'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카이사르와 아킬라스의 전쟁 중 일어난 화재 때문이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60책을 카이사르의 부하들이 불 질렀고, 이는 다시 도시 전역으로 번져갔다. 두 번째 이유는 서기 389년 로마제국의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 주교 테오�필루스에게 이교도들의 사원을 모두 파괴하라고 명령했고, 이때 세라피스 사원 내부 도서관이 파괴된다. 마지막으로 이슬람 군대의 대장 암르가 술탄의 명을 받아 도서관의 모든 책을 불 태우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운명한다. 암르가 도서관의 책들의 4천여 개의 목록탕에서 연료로 사용했다는데, 대략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실은 《사라진 도서관》을 읽으면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떠올렸다. 《장미의 이름》과 《사라진 도서관》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타박할지 모르지만, 짧은 눈으로 보기에 두 책은 비슷한 데가 있다. 화재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수도원 장서관이 불타버렸으니 작품의 결말이 비슷하다고 우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우여곡절을 넘기며 살아남게 된 《사라진 도서관》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숨겨진 저서 《시학》과 《회극론》을 금서로 간주하고 비밀서고에 숨겼지만 화마에 수도원 전체가 사라진 《장미의 이름》은 차이가 있어도 한참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분서에 대한 이야기를 꼼꼼 되짚어보면 《장미의 이름》과 선을 대볼 수 있어 보인다. "고대 도서관의 역사는 자주 화재로 끝이 난다"고 말한 루치아노 칸포라는 "분서(焚書)는 기독교화 과정의 일부이다"라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장미의 이름》은 어떤가. 웃음은 죄악이라 여긴 호르헤가 "웃음은 예술이며 식자(識者)들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수호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 등잔이 넘어지면서 장서관은 화마에 휩싸인다. 이것도 종교적 신념을 공고히 하려는 기독교화 과정의 일부 아니겠는가, 라고 어설피게 기대어 보는 게다. *******



《사라진 도서관》
루치아노 칸포라 지음 | 김효정 옮김 | 열린책들 | 200쪽 | 값 10,000원